

상하이 中西書院과 ‘中西并重’의 함의*

朴英順**

<목 차>

1. 시작하며
2. 교회서원의 출현과 변화
3. 중서서원의 설립과 ‘중서병중’
 - 3.1 중서서원과 ‘중서병중’ 운영
 - 3.2 ‘중서병중’의 전략적 함의
- 4 ‘중서병중’과 문화이식
5. 마치며

1. 시작하며

중국에서 중서문화의 교류는 대체로 서세동점기에 서구 열강의 확장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명말청초 마테오리치,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중국 이름은 南懷仁) 등의 예수회 선교사들은 교육과 매체 활동을 통해 서학과 기독교를 전파하는 한편 중국 문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서방에 소개하기도 하면서 중서문화의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강희제(1661~1722재위) 때 ‘예의지쟁(禮儀之爭)’이 화근이 되어 선교활동 금지와 ‘금교령’이 내려진다.¹⁾ 이는 옹정제(1722~1735재위), 가경제(1796~1820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B00011).

** 國民大學校 中國人文社會研究所 HK副教授.

1) ‘예의지쟁’은 18세기 전후 강희제와 천주교 선교사이 유교숭배, 조상에 대한 제사, 공자에

재위), 도광제(1820~1850재위)를 이어 대략 1차 아편전쟁(1840)전까지 계속되면서 증서문화는 일시적으로 단절상태에 돌입한다.²⁾ 이런 상황에서 일부 선교사들은 화교들이 밀집해 있는 동남아, 이탈리아 등지로 물러나 교육, 선교 활동을 한다.

그 후 1840년 1차 아편전쟁 이후 선교사들은 중국 본토에서 선교활동과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교회서원도 중국 내에서 출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교회서원은 도광22년(1842)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 중국 이름은 馬禮遜)이 홍콩에다 모리슨서원(馬禮遜書院)을 세우고, 그 이듬 해 1818년 말라카에서 세운 영화서원(英華書院)이 1843년 홍콩으로 이전해오면서 동남지역 개항구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서 2차 아편전쟁 이후 해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교당설립 등이 허용되면서 동남부 지역을 넘어 중국 내륙까지 진출하면서 세력이 확대된다.³⁾

이처럼 당시 중국의 대내외 상황과 추세로 볼 때, 서학의 유입은 중국의 근대 교육개혁의 필요와 서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추동하고, 선교사와 교회서원이 활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되었다. 더불어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이 사회전반으로 전개되면서 서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양무학당이나 교회서원 등의 교육기구가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양무학당과 교회서원의 교육방향은 서학에 정통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궁극적인 양성 목적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양무학당의 교육목표는 대체로 만청정부의 요구에 따라 중체서용의 맥락에서 서방의 선진기술을 배워 서방을 제압하는 '사이제이(師夷制夷)'형 인재를 배출하고자 했다면, 교회서원은 설립자는 대체로 각 국의 모회(母會)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고 그런 교회서원의 교육주권은 모회에 소속되기 때문

대한 우상 등의 문제에 대해 벌인 논쟁을 말하며, 결과로 1715년 강희제는 선교활동 금지와 '금교령(禁教令)'을 내린다.

- 2) 옹정제는 가톨릭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고, 가경 16년(1811)에는 천주교도와와의 접촉을 금하였고, 1821년 도광제는 청 왕조의 대법전인 '대청율례'(大清律例)에 가톨릭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기도 했다. 王豫生 主編, 《福建教育史》, 福建教育出版社, 2004, 294쪽.
- 3) 鄧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2004, 535-536쪽 참고.

에, (물론 서학을 가르치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직자들을 배출하여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은 전파자인 서학과 수용자인 중학의 교류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교회서원은 어떤 방식을 취해 이러한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면서 교육과 선교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했을까. 이러한 의문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근대 중서문화의 교류과정에서 '중'과 '서', '체'와 '용', '교회'와 '서원', '과학'과 '종교' 등 일견 모순된 조합들은 '분리'와 '교섭' '수용'과 '변용', '선택'과 '거부' 등 다양하고도 전략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교회서원의 운영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건륭 말부터 아편전쟁 전까지 선교활동 금지와 '금교령'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는 데다 아편전쟁 이후 일련의 불평등조약을 주권 침해라고 인식하는 상황이 팽배하고, 또한 중원 중심의 유가문화를 중시하는 '화이' 관념과 명분질서를 중시하는 종법의 사회구조 속에서 서방의 기독교라는 '이교(異教)'는 반감을 갖기에 충분했다.⁴⁾ 따라서 "아편전쟁에서 참패한 중국인들이 서방 과학기술 도입을 희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서방의 기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⁵⁾ 따라서 교회서원에서는 기독교 전파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서학'을 전파할 방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때, 중서서원(中西書院)의 설립자 미국 남 감리교회 선교사 영 앨런(Young John Allen, 1836~1907, 중국 이름은 林樂知)은 '제이(制夷)'의 관념을 없애고 동시에 이교에 대한 반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⁶⁾ 그 결과, 중국이 필요로 하는 서학을 제공함과 동시에 종교적 색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의 전통적인 중학을 수용하는 이른바 '중서병

4) 李芳, 《中西文化交匯下的教會書院》, 湖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8쪽 참고.

5) 齊慧敏, 《林樂知的教育文化觀及在華主要活動研究》, 河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21쪽.

6) 중서서원은 총3개가 있다. 상하이 중서서원, 쑤저우 중서서원(1894), 톈진 중서서원(광서 말). 본문에서 중서서원은 모두 상하이 중서서원을 의미한다.

용(中西并用)의 방식을 택한다. 그 후 이러한 ‘중서병중’의 방식은 일부 교회서원에서도 실행하는 운영방식 중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중서서원이 운용한 ‘중서병중’ 방식은 서세동점기에 전파자인 서학과 수용자인 중학의 교류 과정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중서서원을 대상으로 ‘중서병중’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앞서 교회서원, 중서서원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교회서원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1980년대 전후부터 시작되었다. 주로 중국의 근대 교육사 범주에서 교회학교·교회대학·기독교사·선교사 등을 언급할 때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왔다. 교회서원에 대한 연구 상황은 크게 서학동점시기 기독교교육이라는 범주 안에서 중국의 근대 교육과 교회대학, 명말청초 기독교 전파와 선교사의 활동과 특징, 교회서원의 변천과 특징 등의 주제들로 이루어졌다.⁷⁾ 교회서원 연구는 결코 적지 않지만 주로 교육학, 역사학의 연구서에 산견되어있다 보니 체계적인 단독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중서서원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보면, 주로 선교사 영 앨런을 중심으로 한 그의 교육활동, 중서서원의 운영과 특징, 영 앨런의 교육운영 전략과 중서교류에 대한 인식⁸⁾ 및 영 앨런의 매체활동과 관련한 《만국공보(萬國公報)》, 《교회신보(教會新報)》에 관한 내용이 있다. 특히 이 두 저널을 중심

7) 단행본으로 熊月之, 《西學東漸與晚清社會》, 上海人民出版社, 1994. 顧長聲, 《傳教士與近代中國》, 上海人民出版社, 2013. 朱有職·高時良 主編, 《中國近代學制史料1862-1922》(第4輯),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3. 李楚材, 《帝國主義侵華教育史料·教會教育》, 教育科學出版社, 1987 등이 있고,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으로 李芳, 《中西文化交匯下的教會書院》, 湖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李禎, 《明末清初基督教的傳播與儒教的回應》, 西安電子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楊齊福, <傳教士與近代中國教育改革>, 《福建論壇》第11期, 2004. 黃新獻, <教會書院演變的階段性特徵>, 《湘潭大學學報》第6期, 1996. 桑兵, <教會學校與西體中用>, 《中山大學學報》第2期, 2015 등이 있다.

8) 鄒振環, <125年前, 林樂知開辦中西書院>, 《社會科學報》第6期, 2006. 胡衛清, <傳教士·儒學·儒學教育>, 《史學月刊》第6期, 1996. 李喜所, <林樂知在華的文化活動>, 《社會科學研究》第1期, 2001. 胡衛清, <東吳大學的起源: 上海中西書院簡論>, 《檔案與史學》第8期, 1997. 張華騰, <1882-1895年中西書院諸問題的考察>, 《史林》第5期, 2004. 齊慧敏, 《林樂知的教育文化觀及在華主要活動研究》, 河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王麗麗, 《林樂知思想研究》, 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으로 영 앨런 중서서원의 교육관련 문제, 《만국공보》와 근대 서방교육, 변법과 유신사조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⁹⁾ 한편, 중국학술논문 검색사이트 中國知網(CNKI)에서 '교회서원', '중서서원', '林樂知'(검색일: 2018.1.25)를 편명(篇名)으로 검색한 결과 각각 15편, 5편, 55편이 검색되었다. 영 앨런과 중서서원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인물에 치중하면서(주로 매체와 연결) 그 속에서 일부 중서서원을 다루고 있다.¹⁰⁾

우리나라는 교회서원은 물론 중서서원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매우 미비하다. 일부 중국 근대 교육학 관련 논문에서 선교사의 교육 사업을 소개할 때 약간 언급하고 있다.¹¹⁾ 영 앨런에 대한 언급도 《만국공보》, 광학회(廣學會), 상하이강남제조국(上海江南製造局)을 다루는 과정에서 저널리스트로서 일부 소개하고 있으며, 중서서원, 영 앨런, 교회서원 등을 단독 연구 주제로 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¹²⁾

본고는 이상의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서 중서서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9) 梁永生, 《林樂知在華事業與〈萬國公報〉》, 中文大學出版社, 1978. 孫邦華, <《萬國公報》對西方近代教育制度的植入>, 《北京師範大學學報》 第3期, 2002. 楊代春, <《萬國公報》對儒學的評析>, 《湘潭大學學報》, 2003. 王林, <《萬國公報》的變法主張述評>, 《學術研究》 第4期, 2004 등이 있다.

10) 중국학술논문검색사이트 中國知網(CNKI)에서 '교회서원'을 '주제(主題)'로 검색(검색일: 2018.1.25)한 결과 총268편이 검색되었고, 이 가운데 석박사학위논문은 총72편이었다. 그러나 '주제'를 검색어로 한 결과는 교회서원을 단독으로 다룬 논문들이 아니라 교회서원 관련(교회학교, 교회대학, 서원, 선교사, 기독교사) 주제를 아우른 넓은 범주의 논문들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편명(篇名)'으로 검색해야 더 정확하다. 이 중 편명으로 검색한 결과 '중서서원'은 원래 총20편이었지만 '중서', '서원'이 각각 떨어진 편명이며 실제 '중서서원'이란 편명은 5편이다. 실제 학위논문 검색결과에서도 유사했다. '중서서원' 주제[題名]로 학위논문을 검색한 결과 한 편도 없고, '임락지'를 주제[題名]로 학위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7편이었다.

11) 이경자, <중국 근대 서양교육의 수용: 명칭과 인물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58집, 2017.1. 김덕삼·최원혁·이경자, <동서양 문명 교류에서 본 '공감'>, 《중국과 중국학》 제30호, 2016 등 참고.

12) 또한 윤치호가 1885년 상해로 유학을 가서 중서서원에 입학하여 근대 교육을 받았다는 상황을 소개할 때 언급되는 정도이다. 윤치호는 당시 중서서원에서 영어와 중국 그리고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 등 근대 교육을 배웠다. 유영렬, <윤치호의 민주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4권, 2005, 13쪽 참고. 또한 그의 저서 《오주여속통고(五洲女俗通考)》는 한국의 여속(女俗)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사실이 1927년 이능화(李能和)가 한국어성사를 정리한 《조선여속고》(1928년, 동양서원)에서 드러났다.

교회서원·중서서원·중서병용이라는 세 개의 커다란 카테고리 구성한다.¹³⁾ 먼저 서세동점기에 교회서원의 출현과 시기별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두 번째로 중서서원의 실제적인 운영을 통해 ‘중서병용’의 특징과 전략적 함의를 분석한다. 끝으로 전파와 수용이란 입장에서 ‘중서병용’을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그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서학동점기의 서학과 중학의 교섭을 통해 전파와 수용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부 문제점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교회서원의 출현과 변화

교회서원은 서학동점기에 선교사들이 중국 전통서원에서 ‘서원’이란 명칭을 취하여 만든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구이다.¹⁴⁾ 건륭 말년 ‘예의지쟁’ 이후 아편전쟁 전까지 선교활동의 금지와 ‘금교’로 인해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한다.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교회서원은 영국 런던교회의 선교사 모리슨이 1818년 미린(William Mine, 1785~1822, 중국 이름은 米隣)과 공동으로 말라카에서 세운 영화서원이다.¹⁵⁾ 그 후 1차 아편전쟁 이후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선교활동과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교회서원도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¹⁶⁾ 중국의 교회서원은道光22년(1842) 모

13) 상하이 중서서원은 교회서원의 단계적 변화과정 중에서 제2단계 발전단계에 속하며, 당시 ‘중서병용’을 운영방식으로 택한 대표적인 교회서원이므로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2장 참고) 또한 중서서원의 연구에 앞서 교회서원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정한다.

14) 서학동점의 시기에 중국으로 온 외국인들이 설립한 School, College, Institute, University, Academy 등 문화 기구들을 모두 서원이라 칭했다. 鄧洪波, 《中國書院史》, 544쪽.

15) 명나라 말기 항주 예수회 소속 사대부 楊廷筠이 자택에 세운 건성서원(虔誠書院)은 중국의 첫 교회 요소가 포함된 서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선교사가 아닌 중국인 신도가 세운 것이다.

16) 난징조약 二. 광저우·푸저우(福州)·샤먼(廈門)·닝보(寧波)·상하이 등 5개를 개항한

리슨이 홍콩에다 모리슨서원을 세우고, 그 이듬 해 1843년 말라카에서 세웠던 영화서원이 홍콩으로 이전해오면서 동남지역 개항구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런 상황은 2차 아편전쟁 이후 해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교당설립 등이 허용되면서 교회서원은 동남부 지역을 넘어 중국 내륙까지로 진출·확대하게 된다.¹⁷⁾ 그리고 당시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이 사회전반으로 전개되면서 청정부는 외국어와 서학에 능통한 새로운 인재에 대한 수요가 절실했다.¹⁸⁾

양무시기를 전후로 각종 서원과 학당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주도로 개설된 양무학당이다. 베이징의 경사동문관(1861), 상하이광방언관(上海廣方言館, 1863) 등과 같이 주로 서양언어를 가르치고 번역인재를 육성하는 언어학당과 무비학당(武備學堂), 기술실업학당(技術實業學堂) 등과 같이 서방의 군사기술 등을 가르치는 곳이다. 둘째, 주로 지방의 사신(士紳)들이 세운 전통서원을 신식학당으로 개조한 형태이다. 상해 정몽(正蒙)서원(1878), 소주 정의(正誼)서원(1878), 강서 구지(求志)서원(1876) 등과 같은 유형이다. 이들은 일부 서학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지만 중학이 위주였다. 셋째, 외국교회나 개별 선교사들이 세운 산둥 덩저우문회관(登州文會館, 1864, 登州書院과 동일), 난징 회문(匯文)서원(1888), 상하이 성요한(聖約翰)서원(1879) 등과 같은 교회서원이다.¹⁹⁾

양무, 변법시기 서학의 전파에 중심에 있었던 교회서원은 크게 세 시기의 발전단계를 거친다.²⁰⁾ 주로 만청에서 민국 초까지 총119개가 설립되었다.²¹⁾

다. <http://www.baidu.com/>

- 17) <중러친선조약>(3): 러시아 정방정교 선교사들은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중미친선조약>(3): 예수회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다. <중영친선조약>(2): 예수회 천주교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다. <중프친선조약>(3): 천주교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다. <중영베이징조약>: 서방의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토지매입과 교당건설을 할 수 있다. <http://www.baidu.com/>
- 18) 鄧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2004, 535-536쪽 참고.
- 19) 양무시기 서원과 학당의 세 가지 유형에 관한 내용은 齊慧敏, 《林樂知的教育文化觀及在華主要活動研究》, 2003, 19-20쪽 참고.
- 20) 교회서원의 3단계 분류방식은 덩홍보, 롱웨이(龍偉), 우리권(吳麗君) 등이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황신셴(黃新獻)은 확실한 단계로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교회서원의 흐름을 정리했다. 교회서원의 흐름은 역사적(아편전쟁, 양무운동 전후), 교육사적(서원개제 전후) 변화와 맞물리면서 단계적인 특징을 보이므로,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 없는

총119개 교원서원의 특징을 역사적, 교육사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시기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²²⁾

첫째, 설립시기별로 보면, 시작단계(1842~1860)는 1차 아편전쟁(1840~1842) 직후부터 2차 아편전쟁(1856~1860)까지로 총14개 교회서원이 세워졌다.²³⁾ 다음 발전단계(1861~1900)는 2차 아편전쟁 이후부터 서원개제(1901년) 전까지 가장 많은 총69개가 설립되었다.²⁴⁾ 끝으로 쇠퇴 단계

객관적인 방식이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鄧洪波, 《中國書院史》, 555쪽. 尹文涓, 《基督教與近代中等教育》, 上海人民出版社, 2007, 137쪽. 黃新獻, <教會書院演變的段階性特徵>, 1996 참고.

- 21) 명말, 중국인 양정균(楊廷筠)이 항주에 세운 건성(虔誠)서원 1개도 포함한다. 鄧洪波(《中國書院史》, 547-554쪽)는 총97개(실제는 98개임)라고 하였고, 李芳(《中西文化匯下的教會書院》, 15-20쪽)은 덩홍보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21개의 자료를 보충하여 총 119개라고 하였다. 이 두 자료의 교회서원 일람표는 기타 자료에 비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119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 22) 실제 총119개이지만 본고에서 3단계의 총 개수가 101개인 이유는 1개(虔誠서원, 항주)는 명 말에 세워진 것이고, 창건시기 미기재한 것 4개, 광서 말로 기재한 것 6개, 청 말로 기재한 것 7개가 있다. 따라서 총119개 가운데 18(1+4+6+7)개를 뺀 101개로 계산한 것이다. 창건시기 미기재 4개: 聖保羅女(성바오로여자서원, 홍콩), 영화서원(푸저우), 眞學서원(푸저우), 眞學서원(푸저우). 광서 말로 기재한 것 6개: 聖心서원(광저우), 南省華英女서원(푸저우), 麥倫서원(상하이), 秀州서원(嘉興), 중서서원(천진), 文會서원(심양). 청 말로 기재한 것 7개: 聖道公會서원(寧波), 協和서원(북경), 培文서원(開封), 南偉烈서원(九江), 博文서원(九江), 路德서원(益陽), 公義서원(중경).
- 23) 14개: 馬禮遜書院(모리슨서원, 홍콩, 도광22년 1842), 영화서원(홍콩, 도광23년 1843), 聖保羅(성바오로서원, 홍콩, 도광29년 1849), 巴陵서원(홍콩, 함풍원년 1851), 維多利亞女(빅토리아서원, 홍콩, 함풍10년 1860), 嘉諾撒聖心(Sacred Heart Canossian서원, 마카오, 함풍10년 1860), 撥萃女서원(마카오, 함풍10년 1860), 眞光서원(광저우, 함풍원년 1851), 英華서원(광저우, 함풍2년 1852), 英華서원(샤먼, 도광30년 1850), 保羅福音(바오로복음서원, 푸저우, 함풍2년 1852), 潞河서원(푸저우, 함풍3년 1853), 格致서원(푸저우, 함풍3년 1853), 淸心서원(상하이, 도광30년 1850).
- 24) 69개: 中央서원(皇仁서원이라고도 함, 홍콩, 동치원년 1862), 西醫서원(홍콩, 광서13년 1887), 心光서원(홍콩, 광서23년 1897), 嘉諾撒聖方濟서원(성프란체스코서원, 마카오, 동치8년 1869), 聖約瑟서원(성요셉서원, 마카오, 광서원년 1875), 聖瑪利서원(성마리아서원, 마카오, 광서26년 1900), 培英서원(광저우, 광서5년 1879), 淑正女서원(광저우, 동치6년 1867), 格致서원(광저우, 광서13년 1887), 培正서원(광저우, 광서15년 1889), 明心서원(광저우, 광서17년 1891), 同文서원(샤먼, 광서24년 1898), 尋源서원(샤먼, 광서6년 1880), 培元서원(복건 莆田, 광서4년 1878), 陶淑女서원(福州, 동치4년 1865), 복음서원(푸저우, 동치10년 1871), 培元서원(푸저우, 동치10년 1871), 廣學서원(푸저우, 광서4년 1878), 鶴齡華英서원(푸저우, 광서7년 1881), 育孀女서원(푸저우, 광서8년 1882), 靈光서원(푸저우, 광서24년 1898), 三一서원(푸저우, 광서2년 1876), 華英斐迪西원(寧波, 동치3년 1864), 三一서원(닝보, 광서2년 1876), 養正서원(닝보, 광서6년

(1901~1932)는 서원개제(1901)부터 민국 초 전후 20년은 교회서원의 쇠퇴 기이자 근대교육으로의 변화 단계로서 총18개가 설립되었다.²⁵⁾ 둘째, 설립지역의 분포를 보면, 푸젠이 2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카오·상하이·저장(각10개)이 많으며, 그 뒤로 홍콩(9개)->광둥·장쑤·산둥(각8개)->베이징·후베이(각7개)->장시(6개)->광시(3개)->후난·톈진·랴오닝·충칭·타이완(각2개)->허난(1개) 순이다. 셋째, 설립자 또는 설립기관의 국적 분포를 보면, 미국이 5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국이 29개이며, 그 뒤로 프랑스(5개)->독일(4개)->이태리(3개)->캐나다(2)->스웨덴·중국(각1개) 순이다. 미국, 영국이 거의 약67%를 차지했다.²⁶⁾ 넷째, 설립시기를 왕조

1880), 長老會서원(닝보, 광서6년 1880), 崇信서원(닝보, 광서7년 1881), 華英서원(닝보, 광서19년 1893), 育英서원(항저우, 동치6년 1867), 聖方濟서원(성프란체스코 서원, 상하이, 동치2년 1863), 培雅서원(상하이 동치4년 1865), 英華서원(상하이, 동치4년 1865), 度恩서원(상하이, 동치5년 1866), 성요한서원(상하이, 광서5년 1879), 중서서원(상하이, 광서7년 1881), 聖瑪利亞女서원(성모마리아서원, 상하이, 광서7년 1881), 存養서원(쑤저우, 동치10년 1871), 博賢서원(쑤저우, 광서5년 1879), 중서서원(쑤저우, 광서22년 1894), 匯文서원(난징, 광서14년 1888), 基督서원(난징, 광서17년 1891), 貴格女서원(난징, 광서18년 1892), 益智서원(난징, 광서20년 1894), 德華서원(칭다오, 광서24년 1898), 登州文會館(등주서원이라고도 함, 덩저우, 동치3년 1864), 廣德서원(青州, 광서20년 1894), 郭羅培真서원(青州, 광서11년 1885), 文美서원(濰縣, 광서9년 1883), 文華서원(濰縣, 광서21년 1895), 潞河서원(通州, 동치7년 1868), 瞿日서원(베이징, 동치9년 1870), 匯文서원(베이징, 동치10년 1871), 慕貞서원(베이징, 동치11년 1872), 懷理서원(베이징, 광서11년 1885), 匯文서원(베이징, 광서14년 1888), 文會서원(奉天, 광서28년 1802), 同文서원(九江, 광서7년 1881), 諾立서원(九江, 광서11년 1885), 儒勵女서원(九江, 광서26년 1900), 文華서원(武昌, 광서3년 1877), 懿訓서원(武昌, 광서23년 1897), 博文서원(우창, 광서11년 1885), 訓育서원(漢口, 광서4년 1878), 訓女서원(한커우, 광서22년 1896), 博學서원(한커우, 광서25년 1899), 辣丁서원(南寧, 광서26년 1900), 廣益서원(충칭, 광서20년 1894), 복음서원(타이완, 광서2년 1876), 理學堂大서원(타이완, 광서8년 1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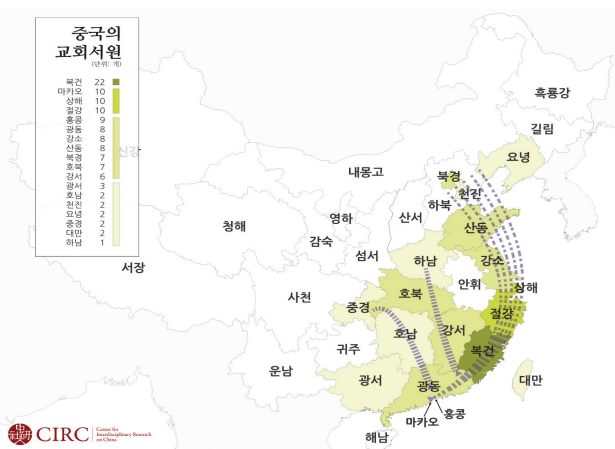
25) 18개: 聖保羅女서원(성바오로여자서원, 마카오, 1914), 英皇서원(마카오, 1926), 聖嘉勒女서원(성클라라여자서원, 마카오, 1927), 瑪利諾서원(마리놀서원, 마카오, 1927), 喇沙서원(라살서원, 마카오, 1932), 聖馬可서원(성마가서원, 푸저우, 1907), 尋州女서원(윈저우여자서원, 푸저우, 1906), 漢英서원(푸젠 邵武, 1905), 洋文서원(상하이, 광서34년 1908), 宏育서원(난징, 광서30년 1906), 禮賢서원(칭다오, 광서27년 1901), 廣文서원(산둥 濰縣, 광서30년 1904), 新學서원(톈진, 광서28년 1902), 葆靈서원(강서 南昌, 광서29년 1903), 聖道서원(漢口, 1908), 湖濱서원(호남 嶽州, 광서29년 1903), 法中文서원(광서 南寧, 광서28년 1902), 辣丁서원(광서 桂平, 1929). 18개 가운데 1932년 喇沙(La Salle)서원을 제외한 17개는 1901~1920대에 세워졌다.

26) 총119개 가운데 설립자나 기관을 미기재한 22개와 불명 1개를 제외한 96개를 대상으로

별로 보면, 광서연간(1875~1908재위)에 7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치(1861~1875재위) 18개, 함풍(1850~1861재위) 9개, 도광(1820~1850재위) 5개 순이다.²⁷⁾ 따라서 교회서원은 만청시기에 주로 생겼고 특히 동치에서 광서 27년(1901) 서원개제 전까지가 거의 80%가 생겼다. 주요 활동 시기는 양무, 변법시기 전후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은 동남부 연해부터 시작하여 점차 북상하거나 내륙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요약을 좀 더 종합적으로 그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지도의 화살표는 확산의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임)

<그림 1> 중국 교회서원의 분포도



출처: 鄧洪波(《中國書院史》, 547-554쪽), 李芳(《中西文化匯下的教會書院》, 15-20쪽)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그림

시작단계(1842~1860)의 총14개 교회서원은 도광제(5개)와 함풍(9개)때

한 결과이다. 미국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명말청초는 이태리 마테 오리치 등 천주교가 중심이었다면 만청 시기는 다국적 열강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양무 전후시기에는 미국, 영국 모회의 선교사들의 활동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27) 광서연간 77개의 계산은 총119개 가운데 명말 1개, 연도 미기재 4개, 1914~1932년으로 표기한 것 5개, 동치(18개), 함풍(9개), 도광(5개) 총42개를 뺀 숫자이다. 또한 구체적인 연도를 표시하지 않고 '광서' 말로 표기한 것 6개와 '청' 말로 표기한 것 7개, '1905년·1906년·1907년·1908년'이라고 표기한 4개는 광서(1875~1908)연간에 포함시켰다.

생겼다. 도광제때는 홍콩(3개), 상하이(1개), 샤먼(1개) 지역에 분포하였고, 함풍제때는 푸저우(3개), 홍콩·마카오·광저우(각2개)에 분포하였다. 즉 홍콩(5개)->푸저우(3개)->마카오·광저우(각2개)->샤먼·상하이(각1개) 순이며, <그림 1>의 하단 부분인 동남부 연안에 분포했다.

초기 교회서원은 시작단계로서 제도화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 교사(校舍)도 갖추질 못해 선교사의 자택 혹은 민가를 빌려 임시 충당했으며 교사는 선교사들이나 그들의 아내가 담당했다. 학생은 주로 교도의 자녀,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나 고아들로 연령층은 기준이 없었고, 무상교육으로 진행되었다.²⁸⁾ 수업은 초기 교회서원이 기독교 전파를 중시함에 따라 교도와 선교사를 기르는 목적으로, 간단한 기독교 교리와 일부 자연과학 지식을 가르치고 중국경전 과목은 중국 숙사(塾師)를 모셔서 가르쳤다.²⁹⁾

발전단계(1861~1900년)의 교회서원은 대부분 광서연간(51개)과 동치연간(18개)에 설립되었다. 동치제 때는 상하이(4개), 푸저우·베이징(각3개), 홍콩·마카오·광저우·닝보(寧波)·항저우·쑤저우·덩저우(登州)·통저우(通州, 각1개)에 분포했다. <그림 1>의 하단 부분에서 동부 연안을 따라 북상하며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작 단계에서는 홍콩·마카오·푸저우·광저우 등 주로 동남 연안에 위치하다가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는 점차 닝보·항저우·쑤저우·상하이 등 절강일대를 거쳐 산둥성 덩저우·통저우 및 베이징 등으로 북상하는 형태를 보인다.

교회서원이 가장 많이 설립되었던 광서연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확대되는

28) 말라카 영화서원 <영화서원장정(英華書院章程)>에 “아버지가 없거나 또는 부모가 없는 고아를 거둬들여 입학시켜 공부를 시킨다.可以收留喪父或無父無母的孤兒入學讀書.”라고 하였다. 吳義雄, <在宗教與世俗之間>, 廣東教育出版社, 2000, 319쪽. 광저우 진광(眞光)서원은 학비, 일용품, 숙식 등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每一生徒, 冬夏各贈衣一套. 學生各人都有藍蚊帳, 紅白色被袋枕巾紙扇高麗巾瓦面盆皮拖鞋, 用具齊備, 父母入學不費一文.” 夏泉·孟育東, <教會教育家那夏禮與眞光書院>, <暨南學報> 第3期, 2006.

29) “최초의 교회학교는 실로 전도를 보조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교도단체(교단)가 점점 발달하고 교당도 점점 세워져서 이에 학교를 설립하여 이로써 목사를 배양하는 기초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韋啓光, <黔滇川邊區苗族信仰基督教試析>, <貴州社會科學> 第4期, 1981.

현상을 볼 수 있다. 여전히 복건(푸저우·샤오우[邵武]샤오우·푸톈[莆田])일대와 광저우·홍콩·마카오·샤먼 및 타이완(총2개) 등 동남쪽에 분포하였다. 그러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닝보·상하이·쑤저우·자싱(嘉興)·난징 등 저장성·강쑤성으로 올라오고, 또 지우장(九江)·난창의 장시성, 우창(武昌)·한커우(漢口)의 후베이성, 웨저우(嶽州)·웨양(岳陽)의 후난성, 쓰촨 일대 충칭 등 내륙까지 분포하였다. 또 북쪽으로는 칭다오·칭저우(靑州)의 산둥성을 지나 베이징, 톈진을 거쳐 평톈(奉天), 선양(瀋陽) 등 랴오닝성까지 확대·분포하였다.

이러한 확대 현상은 2차 아편전쟁 이후 <천진조약>으로 개항구가 증설되고 선교사의 활동이 자유로워졌고, 양무운동으로 인해 서학에 대한 요구가 시급해지면서 교회서원의 규모나 수량도 확대되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前)단계에 비해 제도화, 규범화를 갖추게 되면서 교과과정, 규정, 운영 면에서 보다 완비되어갔다. 발전 단계는 통상개항과 양무운동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서양식 교학방법을 취하였고 서방문화와 과학기술지식 등을 주로 가르쳤다. 수업과목을 보면, 푸저우 학령(鶴齡)서원에서는 수학, 기하학, 전기학, 격물 등의 과학 과목을 개설하였고, 중서서원에서도 대수학, 천문학, 평삼각, 화학, 역학, 미적분, 항해기술 등 서학과목을 많이 개설했다. 이러한 과목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교회서원의 분포가 점차 넓은 도시로 확대되어가면서 초기 무상교육과는 달리 수업료도 받았고, 초기 단계처럼 빈곤한 자제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양파의 관료층, 사대부, 매판상인 등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기도 하다.³⁰⁾ 또한 규모나 형태도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일반교육에서 엘리트교육으로 옮겨갔으며, 종교적 기능은 초기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한편, 서원개제 등 근대 교육개혁으로 인해 정부의 경사대학당 및 격치서원 같은 전통서원의 신식서원들이 설립됨에 따라 교회서원도 합병의 추세를 보이면서 교회대학으로까지 변화하는 새로운

30) “1898년에 성방제서원의 학생은 이미 120명으로 늘었고, 그 가운데 청 정부의 관료 자제들이 많았다. 至1898年, 聖方濟書院學生已發展到120名, 其中不少系清廷洋務派官僚子弟.” 朱有暉·高時良 主編, 《中國近代學制史料》(第4輯), 1993, 236쪽.

움직임이 보여 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 단계는 쇠퇴기이자 근대 교육의 개혁단계이기도 하다. 광서 27년(1901)은 근대 교육사의 전환점의 시기이다. 1901년 팔고문 과거시험 폐지 선포 후 이어 1905년에 과거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교회서원도 변혁을 시도한다. 합병을 통해 새로운 교육기구인 교회대학으로 변화했으며, 1901년에서 1909년까지 총13개 교회대학이 탄생하였다.³¹⁾ 이들은 대부분 초등의 교회학교를 거쳐 교회서원으로 통합되고 후에 교회대학으로 변화하는 점층적인 변화 단계를 보였다.³²⁾ 비록 일부 서원은 1920년~1930년대까지 명칭을 바꾸지 않았지만, 민국 시기(1911~1949)에 설립한 교회 서원은 6곳에 불과하다고 한다.³³⁾ 이렇게 근대 교육개혁에 따라 교회서원도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

31) 13개 기독교대학은 제로대학, 복건협화대학, 금릉여자대학, 之江대학, 화중대학, 華南女子文理學院, 嶺南대학, 금릉대학, 성요한대학, 滬江대학, 東吳대학, 華西協和대학, 燕京대학. 또한 3개 천주교대학으로는 震旦대학, 輔仁대학, 津沽대학이 있다. Jesse Lutz(杰西·格·盧茨) 著, 曾鉅生 譯, 《中國教會大學史(1850~1950)》, 浙江教育出版社, 1987, 附表506-509쪽.

32) 교회학교가 교회서원으로 바뀌고 교회대학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04년 등주서원(등주문회관이라고도 함, 1864/전신은 登州蒙養學堂, 1864)과 廣德서원(1894)이 합병하여 廣文서원(1904)으로 바뀌고, 다시 1909년 郭羅培眞서원(1885)과 합병하여 산둥기독교대학(1909)으로 바뀌고, 1916년 華北女子의학원과 합병하여 제로대학(1916)으로 바뀐다. 둘째, 1893년 광저우 격치서원(1887/전신은 花地寄宿男塾, 1847)은 培英서원(1879)과 합병하여 광주격치서원(1893)으로 되고 후에 嶺南대학(1903)으로 된다. 셋째, 존양存養서원(1876/전신은 存養義塾 또는 十全街小學, 1871)은 1884년 博習서원(1884)으로 개명하고, 1899년 박습서원이 상해 중서서원(1881)과 합병하여 상해 중서서원으로 불렸다. 그 후 다시 상해 중서서원이 소주 宮巷서원과 합병하여 東吳대학(1900, 후에 소주대학으로 바뀜)이 된다. 넷째, 복주서원(1864/전신은 福州保福山寄宿學校, 1853)은 후에 榕城格致書院으로 개명한 후 1916년 福州 英華서원, 聖馬可서원(1907), 廈門 尋源書院(1880)과 합병하여 福州協和大學(1916)으로 바뀐다. 다섯째, 1906년 남경 기독교서원(1891)은 난징 益智서원(1894)과 합병하여 宏育서원(1906)이 되고, 다시 1910년 난징 匯文서원(1888)과 합병하여 金陵대학(1910)이 된다. 여섯째, 聖約翰서원(1879)은 상하이 培雅서원(1865), 度恩서원(1866)과 합병(1879)하여 성요한대학(1906)이 된다. 일곱째, 通州 潞河서원(1868/전신은 潞河男塾, 1868)은 1893년 베이징 匯文서원(1888)과 합병하여 베이징 회문대학(1893)이 되고 후에 1919년 연경대학으로 합병(1919)된다. 여덟째, 항저우 育英서원(1867/전신은 寧波 崇信義塾, 1845)은 여러 발전 단계를 거쳐 之江대학으로 바뀐다. ()의 전신은 교회학교를 의미함. 李芳, 《中西文化交匯下的教會書院》, 13-14쪽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정리.

33) 聖保羅女書院(성바오로여자서원, 마카오, 1914), 英皇書院(마카오, 1926), 聖嘉勒女書院(성클라라여자서원, 마카오, 1927), 瑪利諾書院(마리놀서원, 마카오, 1927), 喇沙書院(라살서원, 마카오, 1932), 辣丁書院(광서 桂平, 1929). 李芳, 《中西文化交匯下的教會書

진다.

이처럼 교회서원은 서세동점기에 서방의 외부로부터 중국의 안으로 들어와 비교적 짧은 약60년이란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그 동안 설립규모·설립유형·수업내용·운영방식 등에서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 왔고, 중국 전통서원과 중국의 근대교육체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교육적인 면 외에도 선교사와 교회서원은 동서 문화의 교류, 서학과 중학의 만남 등 학술문화 영역과 《만국공보》, 《교회신보》, 광학회 등 매체·출판 및 서방의 정치, 사회의 제도적 측면 등에서 동서 문화의 교류와 서학 전파의 중심에서 서있던 중요한 중서문화의 매개체였다.

3. 중서서원의 설립과 ‘중서병중’

3.1 중서서원과 ‘중서병중’의 운영

중서서원의 설립자 미국 감리교 선교사 영 앨런은 1859년 12월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 1860년 6월 상하이에 도착한다.³⁴⁾ 그 후 약50년 간 중국에서 번역·교육·매체·선교 등의 활동을 하다가 71세 나이로 상해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주요 활동은 보면, 1864년 3월 풍계분(馮桂芬), 응보시(應寶時)의 소개로 상하이광방언관에서 영어교사를 하다가, 1868년 《상해신보》에서 편집자(1871년까지 근무)로 활동하면서 그 해 9월 《교회신보》(1868)를 창간한다.³⁵⁾ 그 후 1871년 상하이강남제조국에서 번역 일을 하게 되었

院》, 16, 20쪽.

34) 처음 중국 이름은 임요한(林約翰)이었는데 후에 임락지(자, 榮章)로 개명하며, 자칭 ‘미국의 進士’라 부르기도 했다. 林樂知란 이름은 한나라 양웅 《法言·君子》에 나오는 “천하의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성인도 부끄러워한다(聖人之於天下, 恥一物之不知)”는 말에서 인용하여 ‘恥知’를 ‘樂知’ 바꾸어 지은 것이다.

35) 1874년 7월 《만국공보》로 개명하고 《만국공보》는 1883년 7월 정간, 1889년 복간되

고,³⁶⁾ 1876년에는 청 정부로부터 5품의 관직을 수여받는다.³⁷⁾ 1882년 상하이 중서서원을 설립하고 1883년에는 《교회신보》를 《만국공보》로 개명한 후 편집자로 일하다가, 1887년 선교사·외교관·사업가 등과 함께 상하이에서 출판기구 광학회를 설립한다. 이처럼 교육·매체·출판 등 교육문화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인 기독교 전파를 늘 염두에 두며 살았다.³⁸⁾ 또한 풍계분·왕도(王韜)·심육계(沈毓桂)·장지동(張之洞)·이홍장(李鴻章) 등 중국의 정계·학술계·문화계·교육계·사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인사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중국 사회, 문화에 대한 식견을 넓혀나갔으며, 이는 중서서원 설립과 운영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

중서서원은 1881년 대서원(大書院)과 제1분원(第一分院), 제2분원(第二分院) 세 부분이 각각 쿤산차오(崑山橋), 바셴차오(八仙橋), 우송루(吳淞路)에서 준공을 마친 후, 1882년 정식 개교를 한다.³⁹⁾ 영 앨런은 미국 남(南)감리회에 속한 선교사이므로 중서서원도 미국 남 감리회에서 속했다. 설립 당시 미국 남 감리회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았고, 일부는 사회 각계의 기부금으로 충당했

면서 광학회(1887년 설립)의 기관지가 된다. 1891년 티모시 리처드(Timothy Richard, 1845~1919, 중국 이름은 李提摩太)와 함께 출판한 《中西教會報》도 후에 광학회의 기관지가 된다.

- 36) 임락지가 1871년~1881년 동안 상해강남제조국에서 번역한 종류는 총45권이다. 각국 역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학군서서적, 세계정세 관련서적이 많다. 또한 1882년 9월부터 1907년 6월까지 약15년 간 《만국공보》에 연재한 문장은 총740차례이다. 이 외에도 저서 3권 《中西關係略論》(上海申報館, 1882), 《中東戰紀本末》(上海廣學會刊, 1895~1896), 《全地五大洲女俗通考》(上海廣學會編行, 上海華美書局印刊, 1903)가 있다. 王麗麗, 《林樂知思想研究》, 2009, 부록(二) 127-155쪽 참고.
- 37) 이상 영 앨런의 생애에 관해서는 齊慧敏, <林樂知的教育文化觀及在華主要活動研究>, 4-5쪽. 王麗麗, 《林樂知思想研究》, 17쪽. 李喜所, <林樂知在華的文化活動>, 《社會科學研究》 第1期, 2001, 105-106쪽 참고.
- 38) “때로는 정말 관심과 동정이 간절하다. 나의 중국에서의 생활은 신앙과 희망을 추구하는 날들이다. 종종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내 생활의 전부인 것 같다. 신앙은 나에게 무형의 기둥과도 같으며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나는 중국의 이교(異教)라는 큰 산을 바다 속으로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有時非常地渴望關愛和同情, 在中國過的是一種追求信仰和希望的生活, 這幾乎是我生活中的全部, 往往還得不到任何支持. 信仰對我來說是我的無形支柱, 是我堅持不懈地動力和理由, 因此, 我會努力將中國裏的異教大山沉入大海之底.” 王麗麗, 《林樂知思想研究》, 54쪽.
- 39) 崑山橋는 상해와 쑤저우 사이에 위치하며, 八仙橋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西藏路이라고 하며, 吳淞路는 虹口에 위치한다.

다.⁴⁰⁾

양무 시기 서학에 대한 수요는 절실했으며 교회서원은 그런 요구를 제공해주는 교육기구로 역할 했다. 왕도(王韜)는 서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현재 모든 서학의 원리(西法)는 격치(과학)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없다. 기계를 만드는 것도 모두 격치에서 근본을 둔다. 격치가 아니면 그 이치를 밝게 드러낼 수 없고 그 사이의 오묘함도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격치를 중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⁴¹⁾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영 앨런이 중서서원에서 서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서학만한 것이 없다. 중국의 여러 남북의 개항구는 서방 국가들과 통상하면서부터 중국과 외국은 날로 여러 일들을 교섭하고 있다. 만약 서방의 언어문자, 법률, 전장제도 등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이에서 업무를 본다면, 어찌 중국과 외국이 서로 발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국교를 굳건하게 할 수 있겠는가!”⁴²⁾

영 앨런은 이렇게 서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서서원의 교육과 인

40) 중서서원 제일분원(1881)의 건립비, 토지비용, 학교건축비 및 제이분원(1882)의 설립비의 일부를 미국 감리회가 부담하고 두 분원의 교육설비와 서적, 기물 등은 이홍장 등 양무관료와 부상의 기부로 마련했다. 1881년 설립 당시 기부자 명단을 보면 “소송(蘇松) 태병비도(太兵備道) 류서분 100위안, 강남제조국 100위안,招商局중국 100위안, 이운정 관찰사 50위안, 광방언관번역국 서고제 100위안, 상해전보국총관 정 모씨 20위안, 양경덕 10위안, 사업회관 10위안, 조급화 5위안, 정정선 5위안, 사업수리국총판 장 모씨 4위안…… 총1550위안. 蘇松太兵備道劉瑞芬捐洋一百元, 江南製造局捐洋一百元, 招商局總局捐洋一百元, 李韻亭觀察捐洋五十元, 廣方言館龔譯舒高第捐洋一百元, 上海電報局總辦鄭捐洋二十元, 楊經德捐洋十元, 絲業會館捐洋十元, 趙錦華五元, 鄭程先五元, 水利局總辦張四元……總數一千五百五十元。”張華騰, <1882-1895年中西書院諸問題的考察>, 《史林》 第5期, 2004, 88-89쪽. <中西書院年捐清單并啓>, 林樂知 主編, 《萬國公報》, 第724期, 臺灣華文書局, 1968, 9629-9631쪽. 李芳, 《中西文化交匯下的教會書院》, 45쪽. 본고에서 밝힌 《萬國公報》는 1차 자료를 미처 입수하지 못한 사항이어서 재인용을 하였음을 밝힌다.

41) “竊謂近今一切西法無不從格致中出, 制造機器皆由格致爲之根柢, 非格致無以發明其理, 而宣泄其間奧, 以是言之, 格致顧不重哉。”李芳, 《中西文化交匯下的教會書院》, 28쪽.

42) “而今之最切於世用者莫如西學, 念自中國南北洋諸口岸與我西國互市以來, 中外日有交涉事件, 苟以不通西國言語文字法律典章之人周旋于其際, 何能使中外共敦輯睦, 永固邦交?” 林樂知 主編, <中西書院肄業諸生當自期遠大啓>, 《萬國公報》, 第719期, 9549-9550쪽. 李芳, 《中西文化交匯下的教會書院》, 28쪽.

재양성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밝혔다. 그러나 양무과, 유신파들은 중국은 서방의 과학, 언어, 정치제도 등을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해왔지만, 그 근간에는 '중학을 주로 하고 서학을 보조(主中輔西)'로 하는 '중체서용'의 관념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중서서원에서 중학을 담당하고 전체 교무행정(掌敎)을 관리해온 심육계는 "오로지 중국 학문만을 받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반드시 서학을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서학만을 가르치는 것도 부적절하며 반드시 중국 학문과 함께 해야 한다. 두 가지를 병행할 때 비로소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⁴³⁾라고 하면서 서학은 당시 시급한 것이지만 중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중서서원의 '중서병중' 운영방식으로 발전시켜나갔다. 동시에 영 앨런도 양무과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유학은 단지 중국의 전통 학설에 그치는 게 아니라 통치 이념으로서 관료제도의 근간이 되고, 중국인들의 가치관·행위·관념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중국의 경전저작은 중국학자들에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버릴 것을 더 이상 고려할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 회랍, 라틴문화를 인용한 것과 같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대해야 한다."⁴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당시 대내외 형세로 보나 중국인들의 사고과념 또는 통치이념으로 보나 서학과 중학을 겸한 '중서병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서서원규조(中西書院規條)>에서 "서학을 버리고 중학만 가르치는 것은 안 되고 중학을 버리고 서학에만 집중해도 안 된다."⁴⁵⁾라고 규정한다.

그러면, 중서서원의 제반 운영 속에 '중서병중'의 내용은 어떻게 안배되었는가. 중서서원의 주요 운영방침, 분반·분과방식의 교학모델, 서학과목수업, 중학수업내용 등에서 엿볼 수 있다.

43) "專向中學固不可也，要必賴西學以輔之，專習西學亦不可也，要必賴中學以襄之。二者得兼，并行不悖，乃可以施非常之教化矣." 桑兵, <教會學校與西體中用>, 《中山大學學報》第2期, 2015, 67쪽.

44) "中國的經傳著作對中國的學者來說是必不可少的，我們不再考慮摒棄它們而是考慮像在歐洲和美國引用希臘和拉丁文化那樣對待中國的傳統文化." 王麗麗, 《林樂知思想研究》, 37쪽.

45) "舍西法而專事中法不可，舍中法而專重西法亦不可." 林樂知, <中西書院課規>, 《萬國公報》第676期, 1882年 2月4日. 齊慧敏, 《林樂知的教育文化觀及在華主要活動研究》, 52쪽.

<표 1> 중서서원의 주요 운영 방침⁴⁶⁾

모집	-120명을 정원으로 함. -가정환경은 청렴하고 근실하며 소박. -모집신청, 등록 시 보증인이 없으면 일괄 수용하지 않음. -중학을 배우는 자는 나이, 관직에 크게 상관없이 입학 가능. ⁴⁷⁾
수업료	-매년 중학, 서학 수업료 24위안. 전일제 서학은 50위안, 반일제 서학은 30.2위안. -집안이 가난하여도 자질총명, 품행성실, 학업의지 등이 우수한 자는 부형이 보증인이 되어 학교와 상의 가능. 신청자에 한 해 15명까지 선별.
학규	-서학은 반별로 수업함. -불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하며, 질병이나 공적인 일이 아니면 휴가를 낼 수 없음. -임의로 빠지거나 원규를 어길 경우 부모에게 통지, 훈육. -학규를 위반하여 제명당할 경우,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체함.
수업	-수업은 오전9시 출석, 12시 점심. 봄여름에는 오후1시만 수업, 4시 끝남. -중학, 서학 두 영역을 수업. -격치는 서학에서 가장 중요. 일체 기구와 시험 약품은 배치. -서학을 통해 시무를 익히며 특히 중학을 겸해야 함. -수업연한 총8년: 본원에서 2년->大院에서 4년->원하는 자에 따라 2년 더 수학. ⁴⁸⁾
학습	-모든 학생은 학업에 전념해야 함. 8년을 수학하면 크게 쓰이고 3,4년을 배우면 작게 쓰임. -매주 수요일은 詩文 혹은 서간문을 짓거나 특별 활동.
시험	-춘하추동 4번, 갑을 두 등급으로 평가.
책값	-중학에 필요한 서적, 문방사우는 각자 준비. 서학에 필요한 것은 서원에서 준비. -각 자리에 잉크병 1개 배치, 매년 1角 납부.
기숙사	-기숙사비는 매년 1인 6위안. -기숙사는 10여개로 멀리서 온 학생이 거주. 보증인이 있어야 함. -언어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게으른 자는 보증인에게 알려 퇴출시킴. -임의로 방을 옮길 수 없으며, 기물 파손 시 해당 호실 학생들이 각자 배상.
식사	-6인 1식탁. 매달 2위안. 죽1, 밥2, 반찬4

46) 古吳居士, <書設立中西書院啓後>, 《萬國公報》 第661卷, 1881年 10月 22日, 第14本, 8487쪽. 王麗麗, 《林樂知思想研究》, 36쪽.

47) 당시 한국과 일본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다. 우리나라 윤치호는 1886년 상해로 와서 이듬해 3월 세례를 받고 입교했다. 1893년 중서서원에서 잠시 서학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海濱隱士, <上海中西書院記>, 朱有獻, 《中國近代學制史使料》(第4輯),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9, 280쪽.

모집 정원·대상·수업료·기숙사·학규·수업·시험 등 중서서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볼 수 있으며, 이런 내용들 속에서 서학과 증학이 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서서원은 원래 8년제이다. 입학 초에 먼저 제1분원 혹은 제2분원에서 2년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大學院)에 들어가 4년간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제1 단계이다. 이후 계속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2년간 더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전 과정을 수료하려면 8년이 소요된다.

<표 2> 중서서원의 서학 과목(49)

제1년	글자 배우고 쓰기, 간단한 문구 해석, 쉬운 책 강해, 琴韻[악기] 연습
제2년	각종 간단한 책 강해, 문법 연습, 문장 번역, 琴韻연습, 서양어 학습
제3년	수학 계몽, 각국 지도, 번역 선집, 문자 학습, 琴韻연습, 서양어 학습
제4년	대수학, 격치 공부, 서신번역, 琴韻연습, 서양어 학습
제5년	천문학, 삼각함수법칙, 평삼각법, 구면삼각법, 琴韻연습, 서양어 학습
제6년	화학, 역학, 미분, 적분, 성리강해, 번역연습, 琴韻연습, 서양어 학습
제7년	항해측량, 만국공법, 번역 작문, 琴韻연습, 서양어 학습
제8년	부국책, 천문측량, 지구과학, 금석고고, 번역 작문, 琴韻연습, 서양어 학습

이 외에도 중서서원의 교학모델은 기본적으로 서방 교육체제에 따라 분반, 분과 방식으로 진행하며, 학습 성적에 따라 특등(超等), 1-4등급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一, 학생이 서원에 들어온 후 문과와 이과를 모두 잘 하고 독서량이 많은 사람은 제1반. 독서량은 많지만 문과 이과가 다소 미진한 자는 제2반. 독서량이 많지 않고 문과 이과가 부족하지만 총명한 학생은 제3반, 제4반. 약관이 넘었거나 혹 생원이거나 혹 이미 중학시험을 치룬 자는 특등서학반이 되고 제1반으로 귀속한다. 一, 초등과 제1반 학생은 오전에 서학을 공부하고 오후에 한문으로 경서, 문예, 경례(經禮)를 학습한다. 수요일은 주제에 따라 글 한편과 시 한 수 혹은 논술 한편과 시 한 수를 지어 당일 제출한다. 제2반은 오전에 유가서적을 공부하고

48) “先在分院習學二年，然後選升大院習學四年。迨有進境，情願再學，又準在院二年，前後八年。”
《萬國公報》第666卷，1881年11月26日。桑兵，〈教會學校與西體中用〉，68쪽.

49) 梁元生，〈林樂知在華事業與萬國公報〉，香港中文大學出版社，1978，59-60쪽.

오후에 외국어로 서학을 공부한다. 제3,4반은 하루 종일 유가서를 공부하고 글자 공부를 하며 부수적으로 서학을 공부하거나 서학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약간의 영어를 배운다. 학습 연한이 길어지면 2반으로 올라간다.”⁵⁰⁾

8년 기간 동안 서방 교육모델의 분반, 분과 방식에 따라 점진적인 학습내용의 난이도를 높여 가며 중학, 서학의 과목과 수업 내용을 배분하고 있다. 서학은 수학과 물리학·화학·지질학·천문학 등 자연 과학의 기초이론과 일부 한해, 측량 제도 등 응용기술 지식과 부국책, 각국 공법, 역사학 등 사회과학 지식을 포함한다.

반면, 중학 과목은 주로 오경·시부·서간문·서법 등으로 나누고 특등반은 주로 오경·산문 강독·시 창작·서간문 등을 배우고, 1등반, 2등반은 주로 서간문, 대구를 공부하고 해서연습을 하였고, 3등반은 주로 글자 뜻풀이와 대구를 위주로 강의했다. 교사가 강의하는 것 외에도 자습과 숙독의 시간이 별도로 안배되었다. 교사의 강의과목이나 학생의 학습법은 전통서원의 학습방식과 기본적으로 유사하였다.⁵¹⁾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중서서원은 설립자금·교육방향·운영규칙·교학 모델·수업과목과 내용 및 교수진⁵²⁾에 이르기까지 서학과 중학을 병중하는 운영시스템을 확실히 볼 수 있다.

50) “一、學生選入書院，以文理全通，讀書甚多者爲第一班。讀書已多，文理未盡通順者，爲第二班。讀書不多，文理未通而穎悟過人者爲第三第四班。年逾弱冠，或已入泮，或已典考中學，爲超等西學，歸入第一班。一、超等及第一班學生，上半日專學西學，下半日由漢文教習講解經書文藝經禮。每逢禮拜三，命題作一文一詩，或一論一詩，當日交卷。第二班學生上半日專讀儒書，下半日由西教習教授西學。第三第四班學生全日專讀儒書習字，副西教習，或幫教西學者略授英語，迨年稍長，升入二班。”林樂知 主編，《萬國公報》 676期，臺灣華文書局，1968，8758-8761쪽. 李芳，《中西文化交匯下的教會書院》，37-38쪽.

51) 《萬國公報》第14冊，8558쪽. 齊慧敏，〈林樂知的教育文化觀及在華主要活動研究〉，50쪽 참고.

52) 중서서원의 교사진에 대해 <중서서원과규(中西書院課規)>에 이렇게 규정한다. 서학 정교사 1명, 서학 부교사 1명, 서어 보조교사 2명으로 서학교사는 총4명. 중학 교사는 제1, 2반 1명, 감독교사(督課) 1명, 제3, 4반 1명, 감독교사 1명으로 역시 4명이다. 그리고 별도로 서학 사무 전담인원 1명을 두어 학교사무를 전담하였다. 張華騰，〈1882-1895年中西書院諸問題的考察〉，91-92쪽.

3.2 '중서병중'의 전략적 함의

그렇지만 교회서원의 운영자는 선교사이고 교회서원의 운영은 모회(母會)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중서서원의 설립자 영 앨런 역시 미국 남 감리교회 소속 선교사이며 미국 남 감리교회는 중서서원의 설립자금을 일부 지원하였다. 따라서 중서서원은 학교운영 및 수업 내용에서 미국 모회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서서원이 중학과 서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종교 관련 수업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사실 종교수업은 위의 운영에서 드러난 '중서병중'의 또 다른 함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를 테면, '중서병중'이라는 전략적 운영방식에서 종교수업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즉 종교수업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중학과 서학을 정면에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나아가 서학(특히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 중학(유학)과 종교 간의 관계 등의 면에서 전략적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영 앨런은 중서병중의 운영 속에서 종교 수업에 대해 "매주 주일마다 수업을 마친 학생 중에 만약 교당에서 성경을 듣고자한다면 참으로 유익한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자 자율에 맡기며 강요하지 않는다."⁵³⁾라고 하면서 서학(과학), 중학(유학) 수업과 달리 종교 과목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후웨이칭(胡衛清)은 중서서원은 1882년 개교 때부터 기독교 과목을 개설했으며 종교적 색채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한다.⁵⁴⁾ 그러나 영 앨런은 이를 자율적인 방식에 맡겼던 것이다. 그래서 파커(Alvin Pierson Parker, 중국 이름은 潘慎文)는 중서서원의 2대 교장이 되면서 영 앨런의 운영시스템을 바꾸어 "중서서원과 같은 학교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중국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을 훈련

53) "每逢禮拜日，放學諸生中如有情遠近堂講聽聖經固屬有益，總以各隨自便，毋稍勉強也。”林樂知，〈中西書院課程條規〉，〈萬國公報〉第14年 第666卷，1881.11.26。齊慧敏，〈林樂知的教育文化觀及在華主要活動研究〉，66쪽。

54) "중서서원은 1882년 개설 당시부터 영어 초급반에 일반 기독교 과정을 개설했다. 따라서 중서서원은 처음부터 상당한 종교적 영향을 행사하고 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갈수록 강해졌음이 분명하다. 당시 중서서원에서 사용한 종교 교재는 주로 '印度基督教本國語協會'의 출판물이었다. 이 내용들은 주로 《耶蘇傳》，《舊約》 등이었다." 胡衛清，〈東吳大學的起源：上海中西書院簡論〉，39쪽。

시키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⁵⁵⁾

그렇다면, 영 앨런이 종교적인 점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전략적 사고의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있는가. 선교사 켈빈(Calvin Wilson Mateer, 1836~1908, 중국 이름은 狄考文)은 교회서원의 교육방향과 선교방향을 접목하여 유학·기독교·과학 삼자 간의 관계설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회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세력 있는 집단을 형성하며 그들은 사회적 정서와 의견을 통제한다. 선교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만약 우리들이 한 사람을 완벽하게 교육, 훈련시켜서 그가 일생에 단 한 명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일반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은 일반인 여섯 명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가사상이 뿌리내린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대부계층이다. 만약 우리가 유교의 지위를 대체하려면 우리의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야하고 기독교와 과학으로 그들을 교육시켜서 중국의 구 사대부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통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⁵⁶⁾

켈빈은 중국의 사대부 계층은 유가사상이 뿌린 내린 사람들이고 그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사회에서 발언권이 강한 권력 집단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기독교와 과학으로 훌륭한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를 양성한다면 그들 역시 사회의 주요인물이 되어 서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대부와 유학의 자리를 기독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에서 기독교 과목도 과학과 함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해석이다. 그는 더 나아가 종교와 과학(서학)의 관계에 대해 “과학이 종교의 동맹자가 되지 않으면 종교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된다. 기독교의 좋은 기회는 바로 기독교의 진리로 이 위대한 정신적, 물질적 혁명을

55) 胡衛清, <東吳大學的起源: 上海中西書院簡論>, 39쪽.

56) “不論哪個社會, 凡是受過高等教育的人都是有勢力的人, 他們會控制社會的情感和意見. 作為傳教士來說, 如果我們徹底的訓練出一個人, 使他能在一生中發生一個受過高等教育的人的巨大影響, 就可以勝過半打以上受過一般教育不能在社會上有崇高地位的人. ……作為儒家思想支柱的是受過高等教育的士大夫階層, 如果我們要對儒家的地位取而代之, 我們就要訓練好自己的人, 用基督教和科學教育他們, 使他們能勝過中國的舊式士大夫, 從而能取代舊式士大夫所占的統治地位.” 顧長聲, <傳教士與近代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81, 233쪽.

이끄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 있다. 이는 서양의 과학과 문명이 빠르게 중국에서 뿌리박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⁵⁷⁾라고 한다. 과학(서학)을 일종의 기독교 전파를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과학과 종교가 함께 갈 때 진정한 기독교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⁵⁸⁾

켈빈이 주장한 교육에서의 선교의 중요성을 대부분 교회서원은 따랐고 종교 수업도 실행하였다. 그러나 영 앨런은 켈빈의 이런 사고와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수업방식은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중서서원 역시 종교 수업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켈빈이 운영하는 등주서원에도 중학 수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영 앨런은 종교 수업을 켈빈과 달리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비교적 느슨하게 자율에 맡겼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대내외로 어지러운 만청사회에서 종교 수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풍계분·왕도·심륙계·응보시·이홍장·장지동 등 정계·학술계·언론계·교육계·사업계 등의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국 사회를 이끄는 사람은 사민(四民) 가운데 '사(士)'라고 인식하였고, 중국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려면 무엇보다 '사대부', '관료' 등과의 교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치후이민(齊慧敏)이 말했듯이 '위에서 아래로', '과학에서 종교로'라는 접근방식을 택하면서⁵⁹⁾ 전자만 잘 움직이면 후자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도 초기 교회서원처럼 가난한 집안의 자식을 무상으로 교육하는 데서 벗어나 관료, 사대부, 매관가 등 부유한 집안의 자제를 입학시켰으며, 실제로 중서서원을 설립할 당시 정부 관료나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찬조지원을 얻어냈던 것이다.⁶⁰⁾ 이 외에도 문화이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57) 陳學恂, 《中國近代教育史教學參考資料》(下), 人民教育出版社, 1988, 6쪽.

58) 실제로 켈빈은 등주문화관을 운영할 때 중학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종교과목의 비중을 부각시켜 종교적 분위기 상대적으로 짙었으며,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가 규정한 종교의식에 참여해야 했다.

59) 齊慧敏, 《林樂知的教育文化觀及在華主要活動研究》, 8쪽.

60) 당시 관료, 사대부, 매관가들은 중서서원에 지원도 해주고 자제들도 입학을 시켰지만 종교수업, 예배참여는 꺼려했다. 일례를 들면, 장지동의 경우 손자를 우창(武昌) 문화(文華)서원에 보내려했고 또한 이를 위해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종교 예배에 참여하는

오랜 시간 동안 뿌리 깊게 내려온 사상이자 도덕적 기준이며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자리한 유학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은 힘든 것이며, 게다가 종교적 관념이 희박하고 화이관념이 지배적인 그들에게 이교(異敎)라는 서양종교와 서양 학문을 갑작스럽게 강요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반감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완충작용으로서 중학[유학]을 곁들였고 종교적인 점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중서병중’안에는 겉으로는 서학, 중학으로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종교, 기독교 전파의 전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중서서원보단(中西書院報單)>에서 “본 서원의 졸업생들은 세관·전신국·상업국·철도국·초상국(招商局) 등으로 배치된 사람의 수가 이미 200여 명에 달한다. 또 각 부문에서 설립한 전보(傳報)학당, 수사(水師)학당 등을 설립하자 본 서원에서 가서 학습하러 간 사람도 수십 명에 달한다.”⁶¹⁾라고 했듯이, 실제로 서학과 중학을 겸한 ‘중서병중’의 운영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중서서원의 졸업생들은 정부기관에 많이 취직이 되었다고 한다.

것을 원하지 않자 거절당하여 포기했다고 한다. Jesse Lutz(杰西·格·盧茨) 著, 曾鉅生譯, 《中國教會大學史(1850-1950)》, 41쪽.

61) “本書院歷年肄業生或至各海關, 或至傳報官商各局, 以及招商鐵路等局辦事者已有二百多人, 再各處設立傳報水師等學堂, 由本書院去學習者亦有數十人.” 林樂知, <中西書院報單>, 《帝國主義侵華教育史料: 教會教育》, 467쪽. 이 외에도 1894년에도 이홍장의 명을 받고 “텐진으로 보낸 사람의 수가 200명이 넘었다.” 胡衛清, <東吳大學的起源: 上海中西書院簡論>, 40쪽.

4. '중서병중'과 문화이식

문화이식은 일정한 문화배경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된다. 문화전파는 상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 속에서 상호 융합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거부,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 불교 역시 수용과정에서 배불(排佛)도 있었지만 송대 이학으로 일부 수용되었고 남송에는 그들만의 선종을 만들어 가면서 예술, 문학 등으로 수용되었다. 중국에서 외래문화 유입의 세력과 규모, 충격이 가장 컸던 시기는 만청시기 서학동점일 것이다. 그 충격만큼이나 문화이식 과정에서 드러난 전파자와 수용자 간의 '이몽(異夢)' 또한 존재했을 것이다. 이를 테면, 문화전파자로서의 서학이 수용자인 중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수용자로서의 중학이 전파자인 서학에 대한 수용과 태도가 일치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전파자의 입장에서는 '서'가 중심이 되겠지만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중'이 중심이 될 것이다. 즉 근대 중국에 대한 이해는 서학과 중학을 어떻게 인식, 수용하느냐의 문제이기도하다. 그렇다면, 전파자와 수용자의 입장에서 각기 '중', '서'에 대한 인식과 수용 자세는 어떠했는지, 아울러 이로 인해 기독교 전파는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본다.

첫째, 서학의 수용에 대한 목적과 대상이다. 아편 전쟁이후 서학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 사상은 교육이라는 기제 통해 당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서학(과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루트였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신지식인들을 배출하고 만청 지식인과 관료사회의 지식구조에 변화를 주고, 나아가 기독교 문화를 널리 전파하려했던 그들의 구상은 당시 대내외적 상황으로 볼 때 비교적 '무난한' 구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용자의 입장도 과연 그러했던 가이다. 아편전쟁 이후 서학의 홍수는 유학에 의해 존속되어 온 청 정부와 지식인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당시 서학 지식을 수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는 단순히 신학문에 대한 동경이나 힘의 논리에서 약세에 놓인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다. 궁극적인 것은 수용을 통한 중화문화의 보호이자 외세에 대한 대응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구국'을 통한 '재생'이었고 그 치료방법은 '과학'을 통한 '부국'이었다. 이 지점에서 전파자와 수용자의 시각이 갈린다. 선교사들이 전파하고자하는 서학과 중국인이 요구하는 서학이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종교 역시 서학에 속하지만 중국인들이 원하는 서학은 종교가 아니라 과학이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전파한 과학기술, 교육, 문화를 활용하여 자국의 활로를 찾고자 한 것이다.

이는 양무시기 교육 목표와 방향에서도 드러난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양무학당과 교회서원의 교육방향은 서학에 정통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했지만 궁극적인 양성 목적은 조금 달랐던 것이다. 양무학당의 교육목표는 중체서용이라는 맥락에서 '사이제이'형 인재를 배출하고자 했다면, 교회서원은 궁극적인 목적은 성직자들을 배출하여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서학을 배우는 목적과 그 대상, 범주가 전파자와 수용자 각자 달랐을 거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요구하는 서학의 범주와 대상은 대체로 과학·군사·기술·천문 및 언어는 분명했지만 종교 부분은 미비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서학의 범주 안에는 반드시 종교를 포함할 것이며 오히려 더 궁극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서학 수용의 목적, 대상 및 이교에 대한 관념 등의 면에서 선교사들의 교회서원이 추구했던 기독교 전파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한다.

둘째,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근대화는 그들이 원했던 아니던 간에 서구열강이라는 외부의 추동력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서학의 수용을 통해 중국의 정치와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장하였지만, 그들의 수용 기준은 '중체서용'이었고 이를 중심으로 선택적, 전체적 수용 자세를 취하였다. 그들이 서학을 수용하는 궁극적 목적은 서학 자체에 있다기보다 자국의 중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학을 본체로 하면서 과학·군사·정치 개혁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인 학문을 중시

했던 것이고, 실제 교회서원에서 공부하는 목적도 서학(과학, 외국어 등)을 배워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길 바라서였지 종교 자체에 커다란 관심을 가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하니 정신적인 면을 움직이는 종교가 전파된다는 것은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애당초 어불성설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영 앨런 역시 중국인의 정신세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종교 이외의 어떤 다른 수단이 필요하였고 그 중의 하나를 과학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설사 교회서원이 중국의 근대화 교육과 서학전파에 공헌이 있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한을 받았을 것이며, 실제로 의화단에 의해 공격을 받기도 했던 것이다.⁶²⁾

셋째, 중서병용의 전략적 함의이다. 위의 두 내용과 연관하여 선교사·교회·이교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볼 때, 중서서원이 보여준 중서병용의 '병중'은 전제된 전략이 없는 순수한 '병중'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종교 부분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표면적으로 중학, 서학의 병중을 내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중서병용 안에 가려진 궁극적인 '체'는 무엇일까. 아마도 중학보다 서학이었을 것이고(2장에서 보았듯이 실제 여러 가지 운영에서 보여짐), 좀 더 좁히자면 과학과 종교였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드러내지 않은' 종교였을 것이다. 따라서 과학과 종교는 중학과 비교할 때 모두 '체'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종교라는 '체'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용'인 과학을 앞세웠던 것이다.⁶³⁾

중국 역사에서 외래문화의 유입 가운데 만청 시기는 범위나 세력 면에서 이전보다 강하고도 전면적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체용'론에 입각하여 충돌을 피하기도하고 융합을 모색해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적 수용에 불과하였고, 또 서학의 수용 대상, 범주는 과학에 집중하였지 종교는 그다지 미비했을 것이다. 이처럼 수용자인 중국의 입장이 이러했듯이, 전파자인 중서서원의 전

62) 의화단 운동 기간 중에 상해 성요한서원(1879), 항주 육영(育英)서원(1867), 광저우 격치(格致)서원(1887)이 잇따라 정지되었고, 푸저우 로하(潞河)서원(1853)이 불에 탔다. 한편 1900년 6월 의화단 세력은 헨진과 북경 등지에서 15명의 개신교 선교사 및 여러 선교사와 교도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 鄧洪波, 《中國書院史》, 557쪽.

63) 桑兵, <教會學校與西體中用>, 71쪽.

략적 운영방식인 ‘중서병중’ 역시 중학과 과학을 전면으로 내세웠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체’의 자리에는 종교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파자와 수용자 간의 ‘이몽’은 결국 교회서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파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마치며

본고는 중서서원이 운용한 ‘중서병중’의 방식은 서세동점기에 전파자인 서학과 수용자인 중학의 교류 과정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여, 중서서원에서 ‘중서병중’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근대 중국에 대한 이해는 서학과 중학을 어떻게 인식, 수용하느냐의 문제이기도하다. 중국에서 중서문화의 교류는 대체로 서세동점기에 서구 열강의 확장과 함께 들어온 선교사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서학동점은 그들이 전파한 서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은 주로 교육과 매체 활동을 통해 중서문화의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문화전파는 수용·거부·변용·갈등·융합 등 다양한 형태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전파자와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 선택적 수용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이·체용·사이제이·서학중원(西學中源)·중서병중 등 다양한 개념과 선택 기준을 통해 전파와 수용을 상호 이어갔다. 따라서 중서서원의 ‘중서병중’의 의미는 근대 서학과 중학의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해 준다. 이를 테면, 근대 중서문화의 교류과정에서 ‘중’과 ‘서’, ‘체’와 ‘용’, ‘교회’와 ‘서원’, ‘과학’과 ‘종교’ 등 일견 모순된 조합들이 ‘분리’와 ‘교섭’, ‘수용’과 ‘변용’, ‘선택’과 ‘거부’ 등 다양하고도 전략적인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중서서원의 명칭과 ‘중서병중’의 운영방식을 놓고 보더라도 교회서원과 중서서원은 적어도 중서 문화를 연계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자 했고 실제로 그래왔

다. 서학과 중학의 조우, 기독교와 유학의 만남 등 증서문화 교류의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 비록 짧은 60년의 기간이었지만 그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근대 교육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비록 전통서원에서 '서원'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중국의 전통서원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근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통서원의 개혁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주었다. 교회서원이 발달하던 동치, 광서연간에 전통서원은 신식서원으로 개혁해나갔다. 광서3년(1877) 이홍장의 추천으로 풍계분이 산장(山長)을 했던 쑤저우의 정의(正誼)서원, 광서4년(1878) 상하이 정몽(正蒙)서원 등에서는 중학 외에도 여지(輿地)·시무(時務)·격치·수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였고, 상하이 격치(格致)서원(1874), 샤먼 박문(博聞)서원과 같이 중국인과 외국인이 공동 설립한 서원들도 생겨났다. 전통서원에서 바뀐 신식서원은 그래도 중학이 중심이었지만 당시 교회서원의 서학교육의 운영이 일정정도 영향을 주었다.⁶⁴⁾

물론 증서서원이 중학과 서학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증서병중'의 운영방식을 채택한 것은 당시 중국의 상황으로 볼 때 '무난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자리한 전략적 함의 역시 이해는 된다. 하지만 서학의 수용에 대한 목적과 대상,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방식 등의 문제 앞에서 전파자와 수용자 간의 '이몽'으로 인해 '교회서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파는 한계를 극복해야하는 난점이 있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顧長聲, 《傳教士與近代中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3.
 李天綱 編校, 《萬國公報文選》, 上海: 中西書局, 2012.
 蘇雲峰, 《中國新教育的萌芽與成長(1860-1928)》,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64) 鄧洪波, 《中國書院史》, 563, 573쪽 참고.

- 鄧共波,《中國書院史》,上海:東方出版中心,2004.
- 姚民權·羅偉虹《中國基督教簡史》,北京:宗教文化出版社,2000.
- 陳科美主編,《上海近代教育史》,上海:上海教育出版社,1998.
- 陳谷嘉·鄧共波《中國書院史資料(下)》,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8.
- 熊月之,《西學東漸與晚清社會》,上海:上海人民出版社,2011.
- 朱有獻·高時良主編,《中國近代學制史料1862-1922》(第4輯),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3.
- 李楚材,《帝國主義侵華教育史料·教會教育》,北京:教育科學出版社,1987.
- 蕭功秦,《儒家文化的困境》,四川:四川人民出版社,1986.
- 王爾敏,《上海格致書院志略》,香港:中文大學出版社,1980.
- 陳景磐,《中國近代教育史》,北京:人民教育出版社,1979.
- 梁元生,《林樂知在華事業與《萬國公報》》,香港:中文大學出版社,1978.
- 林樂知,《萬國公報》,臺北:臺灣華文書局,1968年.
- 舒新聲,《中國近代教育史資料》,北京:人民教育出版社,1961.
- 李禎,《明末清初基督教的傳播與儒教的回應》,西安電子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2013.
- 高黎平,《傳教士翻譯與晚清文化社會現代性:以中國第三次翻譯高潮中譯壇美士“三杰”個案等為例》,上海外國語大學博士學位論文,2012.
- 王麗麗,《林樂知思想研究》,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09.
- 李芳,《中西文化交匯下的教會書院》,湖南大學碩士學位論文,2008.
- 齊慧敏,《林樂知的教育文化觀及在華主要活動研究》,河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03.
- 桑兵,〈教會學校與西體中用〉,《中山大學學報》第2期,2015.
- 陳章國,〈試論教會學校和上海教育近代化的關係〉,《福州師範學報》第3期,2006.
- 孫邦華,〈晚清寓華新教傳教士的儒學觀:以林樂知在上海所辦《萬國公報》為中心〉,《孔子研究》第2期,2005.
- 朱秀平·馬明霞,〈簡論教會書院的產生及其影響〉《晉圖學刊》第3期,2004.
- 張華騰,〈1882-1895年中西書院諸問題的考察〉,《史林》第5期,2004.
- 李喜所,〈林樂知在華的文化活動〉,《社會科學研究》第1期,2001.
- 胡衛清,〈東吳大學的起源:上海中西書院簡論〉,《檔案與史學》第4期,1997.
- 胡衛清,〈傳教士·儒學·儒學教育〉,《史學月刊》第6期,1996.
- 黃新憲,〈教會書院演變的階段性特徵〉,《湘潭大學學報》第6期,1996.
- 鄧共波,〈近代書院與中西文化交流〉,《河北學刊》第3期,1993.
- 吳競,〈略談東吳大學建校經過〉,《蘇州大學學報》第1期,1983.

- 朱漢民 지음, 박영순 역주, 《湖湘學派와 嶽麓書院》, 서울: 학고방, 2011.
- 김유리, 《서원에서 학당으로》,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 김해연, 《동서종교문화교류사》, 서울: 성지출판사, 2003.
- 박병기·추병완 저, 《윤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인간사랑, 2002.
- 줄리아 칭 지음, 최효선 옮김, 《유교와 기독교》, 서울: 서광사, 1993.
- 이경자, <중국 근대 서양교육의 수용: 명칭과 인물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58집, 2017.
- 김덕삼·최원혁·이경자, <동서양 문명 교류에서 본 ‘공감’>, 《중국과 중국학》 제30호, 2016.
- 김덕삼, <중국 근현대 대학 변화의 사상적 기초>, 《중국학논총》 제30집, 2010.
- 정병석, <東西交涉에서 드러난 儒學의 文化的認知構造와 堅固한 自我意識>, 《동양철학연구》 제50집, 2007.

< Abstract >

Shanghai's ZhongXi Church Academy and the Meaning of
'Equal Importance between China and the West'

Park, Young Soon

In China, the cultural exchange of Chinese-Western cultures was generally initiated by missionaries and so called 'Western learning spreading to the East' was also started with spreading of Western study by them. The missionaries of the Society of Jesus such as Matteo Ricci in the end of Ming Dynasty and Ferdinand Verbiest spread Western study, propagated Christianity, and accepted Chinese culture through education and media, further the Chinese culture was introduced to the West, and thus Chinese-Western culture exchanges began. However, Chinese-Western culture exchanges were cut off about 100 years because of prohibition of missionary work from the end of

KangXi Dynasty, JiaQing Dynasty, Daoguang Dynasty through to before the Opium War. Then, after the Opium War, the missionaries who had come to China along with the Western Powers by the unequal treaty got to take the chance for missionary and educational operation, and so emerged the Church Academy. And, at the time China was in urgent need of new persons fluent in foreign languages and good at Western study and the missionaries and Church Academy became capable to meet those needs and extended their missionary work.

In the view of development of Church Academy in China, Anglo-Chinese College should be one of typical Church Academy characterized Attaching Equal Importance to Western Study and Chinese Study which gave teaching of Western knowledge required the then in China and Chinese study as well that was the original study in China.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rvey how the 'Equal importance between China and the West' was actually run by Anglo-Chinese College and what it meant in culture. For this, first, we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emergence of Church Academy and its characteristics by period in details and, second, analyze the 'Equal importance between China and the West' in terms of features. Finally, we would like to discuss if the 'Equal importance between China and the West' was implemented effectively from the point of view of each Chinese study and Western study, to learn some aspects of coexistence of Chinese study and Western study in the period of movement of Western study to the East.

Key words: Church Academy, ZhongXi Church Academy, Young John Allen, Equal importance between China and the West, the eastern penetration Western powers, missionary, Education

www.kci.go.k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 31.	2018. 3. 9	2018. 3. 18.	2018. 3. 19.	2018. 3. 31.